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1월 26일 (제1229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공동운명체

나는 해외선교팀에게 항상 말한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우리는 같이 죽는 거다.” 그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들은 나와 함께 고생을 많이 했다. 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죽인다는 위협까지도 함께 받았다. 반면에 내가 받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머리가 가는 곳에 손발이 같이 가는 것처럼, 영광도 고난도 함께했다.

공동운명체, 이는 ‘한배를 탔다’는 뜻이고,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 공동운명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6:5). 이는 우리가 주님과 공동운명체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옛사람에 대해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심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연합한 자’, 곧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대통령과 한배만 타도 대단할진대 하나님 이신 주님과 한배를 탄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일겠는가.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고 말씀하셨다. 주님과 공동운명체만 되면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뿐더러 (요14:12), 포도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풍성한 경제공동체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카락 손발이 공동운명체로 어디든 함께 가듯 주님이 설계하신 그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공동체는 제약이나 구속이 아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과 공동체가 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지배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꿈을 앗아간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선포하셨다. 이번 추수감사예배에도 동일하게 강조하신 것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이상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젊은 세대에겐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고 마음껏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난 2013년부터 11차례 걸쳐 해마다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다시 기도성회를 열고 기도하기 원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던 차에 88체육관을 다시 사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부터 다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이 파병되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잃은 마을 어른이 저를 보고 눈물짓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장 최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세력과의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특히 어린이들의 주검을 안고 오열하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세계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폐일언하고 전쟁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가 일궈낸 성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누리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없는 경제 역시 사상누각이라고 늘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제가 기도성회 때마다 강조한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상대를 감동시켜라.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구도로 가야 한다.’ 이는 평화를 위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긴다 쳐도 온몸에 골병이 들고 상처투성이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싸워서 겨도 나라가 잿더미가 돼버린다면 그 승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에 후처의 자식들과 이삭을 미리 떼어놓은 아브라함의 지혜, 분노한 에서에게서 야곱을 떼놓은 어미 리브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지

이 땅에 70년 자유와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봉우 이초석 목사

자유와 평화는 준비한 자의 몫이다

는 전쟁이 없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모두가 수요일예배에 나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전쟁은 일체의 희망을 앗아가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꿈을 앗아갑니다. 멀게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죽음과 기아의 공포에서 국가와 민족이 해체되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갓난아이던 저를 안고 포 소리만 나면 방공호로 숨어야 했다는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월남전에 제 군대 동기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고, 한반도 정세를 평화롭게 다져가야 합니다.

성경 잠언에도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분쟁은 곧 멸망입니다. 독에 구멍이 나버리면 무

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평화가 담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수요일예배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추계산상 집회에 기도원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합심기도에 모두가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날짜: 2023년 11월 27일(월)~ 30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전5:15~18)



감사는 인생의 방부제요, 성장촉진제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음은 물론 군사, 방위산업까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세계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뤄진 데까지 고작 7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

다.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70년의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1950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름마저 낯선 나라들까지 잠전하여 낙동강 오리알 될 뻔한 대한민국을 살려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희생한 참전 군인들에게 그저 감사,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런 넘치는 복을 받았을까?’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결론은 ‘감사했기에 복을 받았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며 미리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바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감사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에 물을 부어 삶아 먹을 정도였다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맞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항암제요, 방부제요, 성장촉진제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유다도 우리나라처럼 대처할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찌 했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대하20:21). 전쟁이 일어났는데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여호사밧은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대하20:22~23). 생각지 못한 복병이 나타나 서로 싸우고 결국 유다는 어부지리(漁父之利)했습니

다. 전쟁만 이겼나요? 아닙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 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대하20:25~26).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처럼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의 위력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자면 사도행전 16장도 봐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 .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자 그들을 고소하여 바울과 실라가 때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되레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행16:25).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푹이게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행16:26).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감사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 때문에’ 하고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지만 ‘~덕분에’ 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의 과수원에도 피해가 컸나 봅니다. 비바람에 떨어진 많은 사과들을 바라보며 원망하려는 순간 성

령님이 그러셨대요. “감사해라. 그리고 위를 보라.” 그래서 위를 보니 땅에 떨어진 것보다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가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수확한 사과를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태풍에도 안 떨어진 사과, 배!’ 그랬더니 입시생들이 너도나도 주문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은 감사에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간신배들

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 밥이 될 판국인데,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감사했고, 바울 역시 그가 주리고 헐벗고 때 맞으며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교계로부터 제명이 되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

자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 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할3:17~18).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가 아닌 이런 것들 ‘덕분에’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연결해주고 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까?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는요? 영적 부모인 목사님께 감사했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직장동료, 후배, 아랫사람들에게도 감사해 보셨나요?

장미의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가시 중에도 핀 꽃에 감사하라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듯 감사도 표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만이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라고 하셨습니다. 아홉도 감사한 줄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하지 않고 병 고침에 신이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만이 감사하여 사례했더니 감동하신 예수님이 그를 육신의 병에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더하셨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것에도 감사합시다.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자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에도 감사합시다. 돌아보면 당연한 것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개돼지나 진배없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삶, 그것은 곧 내가 행복한 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할렐루야!

:: 객원칼럼 ::

미래이익의 할인법

버핏이 기업의 미래이익을 추산하는 목적은 투자하려는 기업이 현재 안고 있는 경영위험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는 기업경영의 일관성과 깊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핏이 이익발생이 불규칙한 순환형 기업은 가치평가를 하기가 어려워 장기투자의 대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경영위험의 수준은 궁극적으로 주식 매입가가 적당한지 알아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적절한 이익성장률을 추산했다면 돈의 시간가치만큼 할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AAA인 10년 만기 회사채로 6.5퍼센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도 인플레이션, 채무 불이행, 경영위험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줄어듭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요. 이 경우에 떠안게 되는 위험은 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다른 투자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인 셈입니다.

미래이익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매년 발생한 미래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투자자가 추산한 할인율로 나누어야 하며, 결국 기업의 가치는 할인율이 적용된 미래이익의 총계가 됩니다. 할인율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최저 목표수익률(hurdle rate)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할인율을 얼마로 봐야 할까요? 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가장 단순한 해결책으로 보통 10년 만기 장기국채에 투

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같은 비율의 할인율을 도입하여 이익을 할인합니다. 왜냐하면 버핏은 주식투자를 채권수익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기업을 평가하는 그의 첫 번째 방법은 적어도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최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학자들은 적절한 할인율을 이끌어내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주가의 변동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버핏은 경영위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영위험이 없다면, 즉 그 기업의 연간 이익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버핏이 볼 때 그 기업은 국채만큼 위험성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와 유사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는 결국 이익성장률의 변동이 적은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채수익률로 기업의 미래이익을 할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버핏은 “위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특히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행한다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귀의 위험에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

이미경 권사

:: 찬양과 경배::

여러분의 ‘비’는 무엇입니까?

저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마침 글을 쓰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단연 가장 좋은 것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으며 비가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만, 비를 맞는 것도 좋아합니다. 귀갓길에 비가 오면, 일부러 비를 맞으며 가기도 하고, 일부러 차를 비 맞는 곳에 세워놓고 차에서 자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거나 집중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어폰을 끼고 빗소리를 재생하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제가 비를 너무 좋아하기에 비가 오는 날이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비 좋아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빗소리 듣는 건 좋아하는데 어디 갈 때 비 오는 건 싫어.’라고 대답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까?’

‘비를 좋아하는 나’는 사랑하기에 비의 모든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는지... 비를 사랑해서 비가 올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비를 즐기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온전히 즐기지 못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한 노력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저에게 비와 같은 것이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늘 그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윤예녹 생도
dbsdlsgh12345@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나에게 일어난 일

약 한 달 전, 미리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취소 사유를 그대로 말하기에는 사생활을 언급해야 해서 다른 이유를 찾아야 했었지요. ‘내가 급체했다고 이야기하자! 남편과 나는 한 몸 아니겠어?’ 며칠 전 급체했던 남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이것이 이유가 되겠다 치부하며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팍 막힌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명치쪽에 쿵쿵 찌르는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고 소화제를 먹어도, 다음 날 한 의원에서 침을 맞아도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가고 저는 여전히 속이 아픈 채로 기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말이 너를 아프게 했단다.” 순간 어안이 병병해진 저는 기도를 멈추었고, 이내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쭙보지도 않았는데 직접 말씀해주셨을까!’ 그제야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씻은 듯이 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며칠간 저를 돌아보다가 ‘잔꾀 부리지 말

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켜보니 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었지요. ‘남편과 나는 한 몸,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 이것이 지혜라 여기며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것이 잔꾀 부린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급체하였다’라는 부정의 말까지 더하였으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민14:28)는 말씀이 어찌 아니 이루어질까요? ‘잔꾀 부림’과 ‘부정의 말’의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은, 필생의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공한 자들은 언어가 다르다, 너는 부정의 말을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지요? 생사화복이 바로 우리 혀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매사에 복받을 말, 좋은 말만 뿌려 삶이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케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0~21).

김진실 사모

:: 생명의 말씀 ::

활시위를 떠난 화살

한번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고 목표만을 향해 간다. 또한, 한번 총구를 떠난 총알도 직진하여 목표물을 맞춘다. 총알 맞은 구멍은 작으나 점점 나선형 구조로 회전하며 뒷부분을 온통 너털너털하게 파괴하며 관통한다.

성경의 원시복음으로서의 창세의 약속(창3:15)은 처음엔 미약한 구멍처럼 보였으나 점진적으로 직진하며 인류의 전 역사를 관통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효과적으로 성취(히 10:1~10)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심에 필요충분조건이 되셨다.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귀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중심으로 직선적으로 전개되는 계시가 성경이다. 구약으로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그 이전 모든 역사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준비로서’ 의미가 있지, 구약 자체로 의의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나 의식과 형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로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의 원형이요 실체

이신 예수가 오셨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 없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닌 ‘유대주의’가 되고 만다. 또한 그리스도에 더해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음에 자꾸 추가하려고 하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재림 때, 예표였던 원점에다 성전 짓고 구약의 피 제사를 다시 회복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효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날아가던 화살과 총알이 유폐하여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격이다. 성경은 실체에서 다시는 그림자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이 · 팔 전쟁을 통해 종말 성취를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무성하다. 아니라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언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예표였던 구약의 그림자로 되돌아가지 않는 구원이다. 새 언약이신 예수께서 영적 새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십자가 구원의 방식이 전부이다.

송직화 목사

:: 동행하는 삶 ::

:: 신앙에세이 ::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얼마 전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간증 영상을 보았다. 힘들었던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었다. 한국에 남아있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전화로 다투고 그 모든 화를 아이들에게 풀었다고 한다. 유학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아들에게 매일 욕을 하고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아들을 좀 바꿔주세요. 이 아들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 다.”라고 울며불며 기도했다고 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안 바뀌어있는 아들을 보며 “이 쓸모없는 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또 욕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아들을 만들어 줄까?”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피를 흘리며 갈기갈기 찢긴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다고 다

짐을 한 후 아들을 대했더니 아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엄마가 바뀌니 아들이 바뀌었다. 엄마와 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엄마와 함께 앉아 찬양예배를 드렸다. 엄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TV를 보면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다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소리가 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 이라고.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 아이에게는 문제 행동이 나타난 것이었다. 처방해주는 솔루션에 따라 부모가 변화하니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별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느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다정한 말과 친절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성장한다.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님을 늘 깨닫는다. 양육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이 삶의 주인되심을 아이가 깨닫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부족한 엄마지만 그래도 좋은 엄마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다.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4:19).

정효경 집사

Good News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던 동물이 죽었는데 좋은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만,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은 인간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

는 불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의 법대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천국도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땀을 흘려 일을 하지만 ‘고생 끝나면 죽는다’는 옛 선진들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후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

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일상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더 고통스런 영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상화평 목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여호와와 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읽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는 이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도 많습니다. 매일 눈과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결단 없이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지 않는다면 말씀 묵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맙니다. 매번 결단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은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

다.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습관이 잡히지 않아 성경을 꾸준히 보는 것이 쉽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성경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고 앉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동 시간은 오로지 성경만 읽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하니 꾸준히 말씀을 보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읽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

체들과 함께 정한 분량을 읽다 보니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읽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세상의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지는 나무에 붙어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2023년, 결단하여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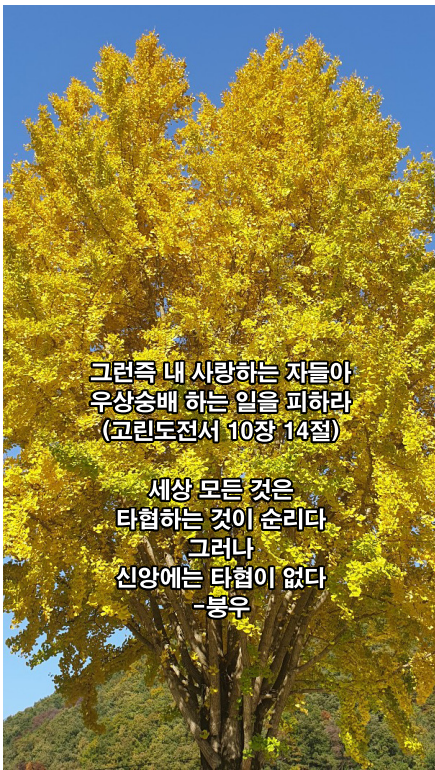
전소희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유이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예수 외에 다른 그 누구도 필요치 않을뿐더러 사람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성모 마리아, 성인, 능력 있는 목회자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 어머니, 자칭 성령님이라는 자에게도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 안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어 우리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유아부터 성인까지 크리스천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뒤에는 교제와 봉사가 있어 교회를 믿음 안에서 더욱 돈독하게 해준다. 다만, 교제와 봉사보다 늘 예배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예배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친목 모임이나 회사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좋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좋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감사해서 좋다.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좋다. 나는 내가 크리스천이어서 참 좋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로마서 10:9).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숭배 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세상 모든 것은
타협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봉우